

근로인민이 주인된 세상

공화국의 각지 근로자들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령인 5.1절 130돐을 보내었다.

평양326전선공장의 노동자 김철민은 세상에 나라가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나라의 주인, 공장, 주인이 된 공지를 안고 이날을 맞은 근로자들은 없을것이라며 이공지와 자랑을 안고 더 큰 로력적성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원에 일하는 리금숙연구사는 우리 과학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사로 내세워준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더 많은 과학기술성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공화국은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된 세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공화국에서 자기의 죽호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조선로동당의 기록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한 마차와 낫과 붓을 새기도록 한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누리는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잘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제사상을 창시

하시고 그것을 정치에 구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일터 세우시었다.

근로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시는 그이의 령도방식은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공업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매 력사적단계마다 뚜렷이 파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강선의 로동자들을 찾으며 강제 1만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나라를 라게 해나가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이의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자들은 6만능력의 분과업인에서 12만능 중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렇듯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그 믿음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서는 몇백년이 걸려야 한다는 공업화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건을 제함으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어 모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우시고 당과 국가활동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도록 하시었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은 멀리 않아 무너질것이라고 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에 광분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았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시고 강선과 회천, 라남과 홍남을 비롯한 도처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세차게 라오르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인민의 행복을 기쁨과 락으로 여기시며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조국의 높은 산, 험한 령을 넘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찾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지도 강행군길이 있어 이 땅우에는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게 되었다.

주제철, 주제비날론폭포가 쏟아지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곧센 의지를 과시하며 대개도간척지가 무연하

게 펼쳐지고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경이 완공되고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받들어 이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물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오신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는 또 한편의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의하여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은 나라 인민은 심장속에 소중히 안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하게 하신 가슴뜨거운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이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그이의 신조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이다.

절세의 위인을 모셔 조선로동당도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근로자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고 안겨주시는 창조물, 제부들도 헤아릴수 없는 많다.

본사기자 주일봉

로동자들을 위해 합숙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세워주시려 걸 아닌 길을 헤치시며 그 리전도 잡아주시였으며 공장을 찾으실 때 마다 로동자들의 생산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이이다. 수도의 중심부에 번듯하게 일떠선 창천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로동자, 사무원,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대중이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어느 시기에도 인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근로인민들처럼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가고있는 존엄높은 인민, 행복한 인민은 없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한복소리로 말한다. 우리 세상은 로동자들의 세상, 인민의 세상이라고.

이런 참다운 세상을 세워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더욱 꽃피워가시는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뜻과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제함으로 일떠세우려는 온 나라 인민의 기상과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

본사기자 주일봉



러머거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과학자, 교육자들 (2017년 4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구내에 일떠선 로동자합숙 (2017년 1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주제 101(2012)년 4월 비 내리는 낫은 날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술에 자리잡은 민수교교기상점을 찾으시었다.

상점의 내부를 돌아보시고 3층 로터에 이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변경치가 아주 좋다고, 교기상점자리가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에서 이번엔 인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만수교교기상점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관심속에 건설된 상업봉사지이다.

그 전에는 보통문거리교기상점을 건설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리던 상점을 수도의 곳곳에 일터 세워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수교교기상점을 앞뒤 부지를 몸소 정하여주시고 건설을 인민대중이 맡아하도록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여러차례 건설장을 헌지지도하시고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인민성, 친절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주방의 위치와

상점간판과 같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군인건설자들은 고기제품들을 병사반을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워하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의 운영과 상품보장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치주시면서 인민들이 민수교교기상점의 덕을 본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그곳을 떠나시었다.

본사기자

매투과 흠모

탁월한 군사의 영재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수 없는것이 탁월한 군사적 자질이다.

그이는 령장의 자질과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신 장군중의 장군,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주제의 군사사상을 완전히 터득하시고 동서고금의 모든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도 다다 통하신분입니다. 뿐만아니라 그이의 군사적안목은 대단히 넓다.

연제인가 한 일군이 밤늦도록 길은 사색속에 책을 읽고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그 책은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전략술에 대하여 기록한것이었는데 여백에는 그이께서 쓰신 여러가지 표식들이 있었다.

보시던 책을 밀어놓으시며 일군을 반갑게 맞이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은 과거의 모든 전쟁들을 종합하여 전개되는 지혜전이며 전략전이라고 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은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뛰어난 군사적안목과 식견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세부에 지나지 않는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군사 령장의 모든 분야에 완전히 정통하신 만능의 군사전문가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을 비롯한 군종은 물론 그를 이루는 모든 병종, 전문병분야에 대하여 작전술로부터 무장장비와 그 사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식견을 지니고계신다.

오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첨단기술에 기초한 여러가지 무기, 전투기술기체들이 개발생산되어 그 종류와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판도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한 나라의 군대가 장비한 무장장비들에 대하여 그것도 전 통가이상으로 정통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다.

연제인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전시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어느 한 땅크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강사가 서울해방전투때 시내에 제일먼저 들어간 제312호땅크라고 해설해드렸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련한 전투의 흔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사면고는 땅크를 주의깊게 바라보시다가 문득 그 땅크의 형과 땅크로 구경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였다.

이미 강의안에 준비되어 있던 문제인지라 강사는 《T-34》 땅크이며 땅크의 무게는 76mm이라고 제책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T-34》 땅크는 포신이 긴것과 짧은것이 있는데 포신이 짧은것은 포의 구경이 76mm이고 포신이 긴것은 85mm이다. 이 땅크는 포신의 긴데 포의 구경이 85mm인것이다. 앞으로 이 땅크포의 구경을 재보라고 확신있게 말씀하시었고는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강사와 일군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 땅크가 전시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 국내외의 한 다하는 군사가들과 장비전문

가들, 학술연구원들까지도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해설을 들은 하였지만 땅크포의 구경에 대한 해설이 잘못되었는것을 발견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던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뛰어난 군사적자질과 품모에 대하여 말할라면 끝이 없다.

최근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술유도무기 시험사격과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련이어 지도하신데 이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속격기련대를 시찰하시는 등 자위적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명군술,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신 그이를 국가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셔오신 공화국의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애에 격파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포병부력강화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얼마전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 하시면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에서 포병부력의 리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만큼 우리는 계속 포병중시, 포병강화의 구조를 내들고 포병사용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과 포무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출중한 군사의 영재를 모시어 공화국의 군력은 날로 더욱 강해지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운명은 믿음직하게 지켜지고있다.

김창운

망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돌차게 말씀하였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고 그 아이는 《아버지!-》 하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보장공업원부의 살림집을 방문하시었다. 그들부부와 자리를 함께 하신 그이께서는 새 집이 살기 좋은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자식은 몇명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가, 제대되어 농업대학을 나왔는데 공부하기

에는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자신께 꼭 편지를 쓰라고 약속을 남기시었다.

자애롭고 인자한 아버지처럼, 다심하고 다감한 어머니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사연을 속속들이 알아주시고 자기들의 소박한 말도 귀중히 들어주시며 말씀 한마디를 하시어도 진정히 넘치게, 때로는 속이 후련하게 하여주시는 그이를 사람들은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것이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과 인민들 사이에는 심장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

사랑과 믿음, 고마움과 그리움이 바로 그것일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의 애국의 령도를 따르는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충정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이 낳은것이다.

백철웅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며

부르며 외락 안겨들었다.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시며 그들모두를 한몸에 안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무엇을 하며 놀았는가, 맛있는것을 먹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한 아이가 오늘 민경대유 회장에 가서 아이들앞에서 원수님께서 애육원을 찾아주시었을 때 자기를 안아주시고 뿌뿌도 해주었다고 자

나를 부르는 소리.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고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는 그이께서 하신 심중의 토로였다.

주제103(2014)년 국제야동절에 평양애육원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에 원아들이 《아버지!-》라고

망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돌차게 말씀하였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고 그 아이는 《아버지!-》 하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언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애쌍둥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식의 모습이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온 나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 언제나 인민들을 찾아가신다.

주제107(2018)년 7월 어느 날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신

남새는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된다.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는 함경북도지역에 대규모 증평남새 온실농장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새 남새온실농장건설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부지선정으로부터 건설전망계획, 건설자재보장, 건설현황점검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어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다. 하여 북부지역에는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증평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이 일떠서게 되었다.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은 생산공정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들로 장비되고, 우리들의 손으로 키워내어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

리에 맞게 건설하는 사업을 계속 다그쳐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지난해 12월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조업식에 참석하시어 조업테프를 뚫으시고 농장을 돌아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에서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었다.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인민들의 유쾌한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복리는 날이 향상되고 농촌의 문화수준, 농민들의 문명수준이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설